

인터넷 이용 유형이 초등학생의 인터넷 일탈에 미치는 영향 :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장현미**·김반야***

초 록

이 연구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초등학생의 인터넷 이용 유형에 따른 인터넷 일탈의 변화가 어떠한가에 대해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중 조사시작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인 아동을 대상으로 3년에 걸쳐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초등학생의 인터넷 일탈의 초기치에 사회적 이용의 초기치는 정적으로, 정보추구 이용의 초기치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일탈의 변화율에는 사회적 이용의 초기치가 정보추구 이용의 초기치보다 정적으로 유의하게 더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사회적 이용의 변화율은 정적으로, 정보추구 이용의 변화율은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초등학생의 인터넷 유형 중 사회적 이용의 과도한 이용을 지양하고 그 올바른 예절과 방법을 교육하며, 정보추구 이용을 장려하는 것이 인터넷 일탈의 감소를 위한 지침이 될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했다.

주제어 : 인터넷 이용 유형, 인터넷 일탈, 잠재성장모형

* 이 연구는 2008년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I. 문제 제기

인터넷이 우리 일상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매체로 자리 잡으며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은 인간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나, 동시에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비대면성, 시공간초월성 등의 특성들로 인해 다양한 양상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사용하는 연령이 점차 어려워지고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면서¹⁾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각종 일탈이 증가하고 있어 그 심각성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기존의 청소년 인터넷 일탈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 교육학, 청소년학(가족학)영역에서 일탈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성향, 부모 관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지만 실제 아동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행태와 일탈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한편 인터넷의 이용 양식과 관련된 연구들은 사용목적 및 주로 사용하는 콘텐츠에 따라 인터넷 이용 유형을 분류했으며, 언론학 분야에서는 주로 이들 이용 유형 간의 차이점과 해당 유형에 따른 다양한 설명변인들에 대해 연구해왔다(나은영 외, 2007; 박소라 외, 2007; 배영·박소라, 2005).

한국인터넷진흥원(2008)의 ‘2007년도 하반기 정보화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고 한 인터넷 사용목적은 ‘자료 및 정보습득’, ‘여가활동’, ‘커뮤니케이션’, ‘교육 및 학습활동’이었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이 항목들에 대한 응답률은 모두 80% 이상을 상회했다. 이러한 통계는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주 이용패턴이 메신저, 동호회, 전자우편 등 친구를 사귀기 위한 목적, 또는 학교의 학습 보충자료 검색이나 기타 정보 습득에 주로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즉, 이는 단순히 인터넷 자체의 초등학생들에 대한 영향력을 논의하기보다는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행위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별 영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이용 유형이 인터넷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사회적 친교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초등학생이 인터넷을 통한 일탈을 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예를 들

1) 2008년 ‘한국인터넷백서’에 따르면 2007년 기준 3~9세 아동 중 인터넷 이용률은 79.5%, 초등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은 99.3% 이다.

어, 인터넷을 주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주로 사용할 경우, 익명성과 같은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들로 인해 감시나 감독이 어려워지며, 따라서 인터넷 사이버공간 상에서 일탈 비행을 저지르는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비행 경험을 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어 일탈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서주현, 2001; 정영숙, 2000; 정기선, 2000).

이와 함께 초등학교의 정보추구 이용이 인터넷 일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파악해보고자 한다. 학습 등의 목적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는 경우 인터넷을 보다 실용적인 목적으로 유용하게 이용함으로써 타 이용 유형과 차별화된, 특히 사회적 이용과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II. 이론적 검토

1. 인터넷 일탈에 대한 논의

1) 인터넷 일탈의 개념

일반적으로 일탈(deviance, deviance behavior)이란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는 모든 규칙 및 규범위반행위로 형법을 위반한 행위인 범죄(crime)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좁은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법에 의해 규제되는 범죄를 제외한 규칙 및 규범위반 행위’로 규정하기도 한다(박병식 외, 1999).

Hagan(1987: 48-59)에 따르면 이러한 규범위반 행위는 해당 행위들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평가, 사회적 반응의 심각성, 규범에 대한 합의 정도에 따라 합의범죄(consensus crimes), 갈등범죄(conflict crimes), 사회적 일탈(social deviations) 사회적 다양성(social diversions)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일탈행동 역시 인터넷을 이용한 심각한 범죄행위에서부터 피해를 주지 않는 단순한 문제행위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탈과 범죄의 개념이 청소년의 행위에 적용될 때에는 ‘청소년문제행동’ 또는

‘청소년비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소년의 범죄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협의적으로는 청소년의 범죄행위를 제외한 지위비행(status offenses)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일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인터넷 일탈이란 “인터넷 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탈적 행위와 그 현상”으로, 즉,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규칙 및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 및 범죄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규칙과 규범이란 오프라인 상에서 적용되는 규범뿐만 아니라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새로 만들어진 규범을 모두 포함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규정 하에서 인터넷 일탈은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에서부터 그 정도가 약한 문제행위까지 모든 일탈적 행위 및 범죄적 행위를 포함한다.

2) 인터넷 공간의 일탈적 특성

인터넷 공간은 기존의 현실공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컴퓨터 네트워크 속에 존재하는 공간으로(박성수, 2001), 인터넷 공간만의 고유한 특성들은 인터넷 상의 일탈을 증가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먼저 인터넷 공간의 대표적인 특성인 ‘익명성’은 사회적 맥락 단서를 줄여 사회적 실재감을 감소시키는데(황상민·한규석, 1999),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회적 규범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화된다(서주현, 2001).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 성향이 증가하면 자신의 욕구를 지연하거나 통제하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의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일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인터넷 공간의 시공간적 무제약성은 현실 세계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제한된 지식, 기술력, 경제력 등의 이유로 실행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비교적 손쉽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건전한 정보와 범죄 기회를 제공한다(박성수, 2001). 마지막으로 온라인상에서는 오프라인 현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탈에 대한 감시가 적고 일탈행동이 발견 된다 하더라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며 사후 처벌이 어렵다는 점에서 처벌의 가능성을 낮게 지각하게 된다.

2. 인터넷 이용 유형과 인터넷 일탈

1) 인터넷 이용 유형

초등학생과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행태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이들의 인터넷 이용 행태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비교, 분석했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서로 다른 인터넷 이용 유형 간에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밝혀왔다(나은영 외, 2007; 박소라 외, 2007; 배영·박소라, 2005; 서주현, 2001; 성한기·안경옥, 2005; 안선정·최보가, 2007; 장윤재·김소희, 2008).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이용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과 유형화의 결과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두 가지의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이용 유형을 분류했다. 첫 번째 기준은 인터넷에서 무엇을 얻으려는, 즉 실용성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실용성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숙제를 위한 자료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검색이 중요한 이용 형태가 된다. 두 번째 기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교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많은 연구들은 인터넷에서 ‘대인 관계 추구형’, ‘관계추구형’, ‘교제형 이용자’ 등의 이용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이용 행태를 부각시켰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인터넷 이용 유형에 따라 인터넷 일탈과 비행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게시판, 카페, 블로그 등과 같이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적 상호 작용을 하는 인터넷 이용의 경우 낯선 사람과의 채팅을 하는 경험이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유해 정보나 비행친구(bad peer)와 접촉할 기회가 늘어나게 되어 일탈행동에 휩쓸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김은미 외, 2007).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고려해 보면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 행태는 정보 추구를 중심으로 한 실용적인 인터넷 이용 유형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인 이용 유형으로 크게 나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용 유형에 따라 유형 별 특성 및 다양한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특히 인터넷 일탈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사용 할 때 인터넷 중독, 유해 환경 접촉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와 같은

유형이 인터넷 일탈과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기존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인터넷의 사회적 이용과 정보추구 이용이 인터넷 일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2) 사회적 이용행태와 비행기회와의 관계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비행과 범죄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비행 기회를 언급했다. 비행기회란 “비행이나 범죄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쾌락적 요소, 그것을 저지 할 수 있는 감시 상황의 부재, 그리고 비행을 손쉽게 저지를 수 있는 상황 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mith, 2004). 일반 일탈과 관련해서 김문조와 윤옥경(2001)은 유해업소를 비행기회로 규정하고 유해업소 출입과 청소년 비행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 비행기회가 일탈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더불어 유해업소 출입과 함께 온라인 활동을 또 다른 다른 비행 기회로 규정하여 온라인 활동과 청소년의 비행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온라인 활동이 유행 업소에 비해 약 3배 정도의 비행 조장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비행 수행 용이성, 감독 부재와 낮은 발각 가능성을 이유로 사이버 공간의 비행 기회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던 이성식(2005)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청소년들의 비행, 범죄를 자극하는 요인 중 한 가지로 비행 친구가 있다. 이는 Sutherland(1978)의 차별접촉이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비행, 범죄행동을 사회적 학습의 결과로 간주, 비행,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비행의 가치와 기술을 학습하면서 비행,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집단의 상호 작용을 통해 비행과 범죄를 학습하고 이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 집단은 가정, 학교, 또래 집단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정과 학교는 비행이나 범죄와 관련된 학습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또래 집단의 영향력, 특히 비행 친구의 영향력이 청소년의 비행, 일탈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노성호, 2005; 정기원, 2006). 그런데 친구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데 온라인상에서의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연령, 성별 등의 제한이 거의 없고 비인격적인 가상의 존재와 교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행친구의 개념을 더욱 확장 시킬 수 있다. 특히 비행기회의 관점에서 보면 주변

에 비행친구가 많거나 온라인에서 비행친구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환경에 자주 접촉하는 것도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개연성을 높이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인터넷 공간은 비행 기회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비행기회에 많이 노출 될수록, 인터넷 일탈을 학습, 강화하는 요인과의 접촉이 빈번하게 되어 인터넷 일탈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과 같이 이 연구에서 정의하는 인터넷 일탈은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규칙 및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고의로 거짓 내용을 퍼뜨리기’, ‘인터넷에서 불법소프트웨어 다운 받아 사용하기’, ‘다른 사람의 인터넷 ID/주민등록번호를 허락 받지 않고 사용하기’, ‘채팅하면서 성·나이 속이기’, ‘다른 사람의 컴퓨터/웹사이트 해킹하기’, ‘채팅/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폭언하기’ 등이 대표적 행위 유형이다. 이러한 행동 중 대부분은 인터넷, 게시판, 커뮤니티, 채팅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로 인터넷의 사회적 이용은 이용 행위 그 자체만으로 일탈을 손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시공간적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생들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해킹, 바이러스 제작 및 유포와 같은 일탈보다는 채팅, 게시판, 커뮤니티에서의 반사회적 행동이 실천으로 옮기기가 더 쉽다. 인터넷 일탈 경험 중 게시판 관련 일탈과 채팅 관련 일탈 경험이 다른 일탈 경험보다 더 많다는 김재휘와 김지호(2002)의 연구와, 청소년의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 실태 분석(한국청소년개발원, 2001)의 연구 결과는 이와 같은 현상을 잘 뒷받침해준다.

또한 게시판, 커뮤니티는 인터넷 상 가상 공동체로서 오프라인의 공동체, 집단이 갖는 동조 행동(conformity), ‘집단 사고’의 특성을 보이는데(황상민, 2000), 이는 인터넷 일탈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동조현상이란 집단의 압력에 의해 집단 내 다른 구성원들의 행동방식을 따르는 것이고, ‘집단 사고’ 역시 집단의 영향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비판적인 사고가 없이 합의에 이르는 형태를 의미한다(Mayers, 2002).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서의 동조와 무비판적인 집단사고 방식은 해당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일탈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해 결국 일탈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을 낮추어 일탈 행동을 가볍게 여기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동조나 ‘집단 사고’와 같은 현상은 응집력이 강하거나 권위적 지도자가 있는 집단에서 잘 일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한 지위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는 사

이더 공동체 내에서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이버 동호회나 인터넷 게시판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한 집단이기 때문에 정서적 애착이 높아 해당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조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생 경우에는 인터넷 공간상의 동호회 활동, 친구들과의 관계를 가족관계에 버금할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고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고 한다(황상민, 2000). 뿐만 아니라 축약적이고 간결한 표현에 기반 한 사이버 공간 내 콘텐츠(황상민·한규석, 1999)와 인터넷 문화의 특성인 즉각성에 따른 빠른 반응과 짧은 생각 단위는 진지하고 깊이 있는 판단을 어렵게 할 수 있어 대세에 휩쓸려 가는 동조적 사고 경향을 띄기 쉽다.

게시판이나 커뮤니티는 사람들이 모이는 가상의 공간으로 기능함으로써 특정 장소가 갖는 ‘행동 가능성(affordance)’을 통해 일탈을 손쉽게 실행에 옮기는 비행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여기서 ‘행동 가능성’이란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통해 해당 장소에 어울리는 행동 규범을 찾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황상민, 2000). 만약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서 오고 가는 글들이 반규범적이거나 반사회적이라면 이는 해당 게시판과 커뮤니티에 대한 단서가 되어 그 사이트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한다는 일종의 행동지침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게시판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물론 처음 방문하는 사람 역시 해당 사이트에서는 적절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는 반규범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 이용은 일탈을 통해 쾌락과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일탈의 비행기회가 된다. 혼자서 정보를 찾거나 게임을 하면서 하게 되는 일탈과 달리 채팅, 게시판, 커뮤니티에서의 일탈 행동은 상대방의 반응을 야기한다. 일탈에 대한 타인의 반응이 우호적인지, 비우호적인지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자신의 일탈에 대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반응이 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자신의 일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들이 쾌락과 보상으로서 작용하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그로 인한 가변적이고 다양한 정체성 때문이다. 현실 세계와는 다른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이 본인 스스로 새로운 모습을 경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지는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경험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 즉, 자신이 새로 규정한 정체성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지하고 또 그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 청소년

들에게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황상민(2000)은 청소년들이 채팅에서 음란행동이나 저속한 행동을 쉽게 저지르는데, 이는 현실에서 억압된 자신의 모습을 통제하지 않은, 거칠고, 현실과는 다른 모습을 타인에게 드러내려는 욕구 때문이며 이처럼 평소의 정체성과 다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이를 통한 우월감과 통제감의 실현 환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적 이용을 통한 인터넷 일탈은 감시, 감독이 어렵다는 점에서 또 다른 비행 기회로서 작용한다. 인터넷에서 불법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터넷 ID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쉽게 발각되고 추적이 비교적 용이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채팅, 메신저, 이메일과 같은 사회적 이용의 경우 이용 당사자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커뮤니케이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주고받는 메시지가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일탈은 더욱 은성화되어 책임 추궁이 어려워지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보상으로 작용하는 비행기회로서 일탈을 강화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의 사회적 이용은 인터넷 일탈을 학습하고 강화해주는 비행친구와의 접촉빈도를 증가시키는 비행 기회로 작용한다. 서주현(2001)은 ‘게임 오락형’, ‘대인관계 추구형’, ‘정보탐색형’, ‘기타’의 인터넷 유형 중에서 ‘대인관계 추구형’의 청소년들이 인터넷 상에서 만나는 친구들 간의 친밀도가 높고 관계의 깊이와 관계의 지속에 대한 기대도 가장 높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의 사회적 이용은 오프라인에서의 비행친구를 부모나 교사의 감독을 피해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또 다른 채널을 마련해준다. 인터넷이 새로운 온라인 친구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용된다는 박소라 외 2인(2007)의 연구는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특히 인터넷 동호회와 채팅은 일상생활에서는 나이, 직업을 비롯한 인구 통계학적 속성과 시간과 장소의 제한으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범위와 종류의 친구를 만날 수 있다(박소라 외, 2007; 서주현, 2001; 한국청소년 개발원, 2001; 황상민·한규석, 1999; 황상민, 2000)는 점에서 비행기회로서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 준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보다 많은 비행친구, 위험 요소와 직면하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인터넷의 사회적 이용이 인터넷상의 일탈에 대한 심리적 경계를 완화하고 물리적인 실행 가능성을 높여 일탈 발생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인터넷의 사회적 이용 자체가 비행기회로서 작용하여 인터넷 일탈을 촉진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3) 정보추구 이용행태와 인터넷 일탈

학습 또는 기타 정보검색 등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인터넷의 정보추구 이용이 인터넷 일탈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몇몇 연구들은 인터넷 이용 유형과 인터넷 일탈 간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면서, 인터넷 이용유형 중의 하나로서 정보추구이용이 인터넷 일탈과 관련된 요인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밝힌 바 있다.

먼저 이소희와 성윤숙(2001)은 인터넷 이용 동기와 청소년들의 사이버 포르노그래피 노출간의 관계 연구에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사이버 포르노그래피에 노출된 후 성 충동이나 성 개방 성향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정보추구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성향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 동기와 사이버 일탈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외로움을 달래려는 동기는 일탈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반면, 정보추구 동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탁수연 외 2인(2007) 역시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발견했는데, 청소년의 인터넷 일탈과 인터넷 이용 현황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1주일에 평균 소비하는 정보 검색 시간은 채팅과 언어폭력을 제외한 일탈의 모든 하위 영역과 상관관계가 낮게 나왔지만 채팅과 언어폭력의 경우는 오히려 유의한(significant) 부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발견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다른 인터넷 이용유형과는 달리 정보추구 이용이 인터넷 일탈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거나 부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보추구 이용 유형과 인터넷 일탈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인터넷의 사회적 이용과 정보추구 이용이 인터넷 일탈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해 파악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1년에 2차례(상반기, 하반기) 발간하는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시기에는 인터넷 이용패턴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로 시간적 변화정도가 크고, 또 성별, 가정의 SES에 따른 차이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이러한 조사 결과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터넷 이용유형에 따른 인터넷 일탈의 변화를 개인차원에서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연구문제 1] : 인터넷 이용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의 인터넷 일탈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가설 1-1〉 사회적 이용이 증가할수록 초등학교의 인터넷 일탈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1-2〉 사회적 이용이 초등학교의 인터넷 일탈에 미치는 영향은 정보추구이용이 초등학교의 인터넷 일탈에 미치는 영향보다 클 것이다.

[연구문제 2] : 초등학교의 인터넷 이용 유형에 따른 인터넷 일탈 변화 정도는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IV.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이 연구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1, 2, 3 차(2004년, 2005년, 2006년)를 분석했다. 이 자료는 2004년 1월 기준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통해 2,949명의 학생과 해

당 학생의 부모를 추출했다. 설문조사는 2004년부터 1년 간격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상기의 표집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2. 주요 변인

분석에서 사용할 변인들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 문항에서 추출해 구성했다. 원래의 설문문항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인터넷 이용 유형의 경우 연구 목적에 맞게 선별하거나 재구성해 사용했다.

1) 종속변인

초등학생 대상 설문 조사의 12번 질문인 ‘학생 자신은 지난 1년간 아래와 같은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이나 있는지 솔직하게 적어주세요’에 제시된 6개 항목을 통해 인터넷 일탈 정도를 측정했다. 6개의 항목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고의로 거짓 내용을 퍼뜨리기’, ‘인터넷에서 불법소프트웨어 다운 받아 사용하기’, ‘다른 사람의 인터넷 ID/주민등록번호를 허락 받지 않고 사용하기’, ‘채팅하면서 성·나이 속이기’, ‘다른 사람의 컴퓨터/웹사이트 해킹하기’, ‘채팅/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폭언하기’등이다. 각각의 항목은 해당 행동의 경험 여부를 묻고, 만약 경험이 있다면 1년에 몇 번 해당 행동을 했는지 물었다. 여기서는 해당 행동의 경험이 없는 경우는 0점,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는 1점을 부가하여 6가지 행동의 경험 여부를 모두 합산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합산한 점수를 인터넷 일탈 정도를 척도로 사용했다. 이 점수는 총 여섯 개의 항목으로 최하 0점부터 최고 6점의 범위를 갖게 되지만 5점과 6점의 결과를 얻은 학생 수가 매우 적어(1, 2, 3차년도 모두 전체 인터넷 일탈 빈도 수 중 1% 이하) 5점과 6점은 4점으로 재조정했다. 그 결과 인터넷 일탈은 최저 0점, 최고 4점의 분포를 갖는다.

2) 예측변인

(1) 시간변동 예측변인(time variant predictors): 인터넷 이용유형

청소년 패널 설문조사 질문 중 실제 인터넷 이용 행태를 직접적으로 묻는 항목은 없다. 하지만 학생 대상 설문 조사 16-2번 질문 ‘귀하가 다음의 목적으로 컴퓨터(인터넷)를 얼마나 사용 하는지 표시해 주십시오.’에 대한 하위 항목들을 통해 어떤 형태로 인터넷을 이용하느지를 유추해 유형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항목은 총 9개로 이중에서 이용 행동의 내용에 따라 사회적 이용 유형, 정보추구 이용 유형에 적합한 항목만을 추려냈다.

사회적 이용의 경우 ‘동호회/카페/커뮤니티 활동’, ‘전자우편(E-mail, 이메일)이용’, ‘게시판 활동’, ‘채팅하기/메신저 사용’의 네 가지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정보 추구 이용은 ‘공부 및 학습관련 정보검색 · 열람’과 ‘기타 정보 검색, 열람’의 두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① 사회적 이용

학생 대상 설문 조사 16-2번 질문 ‘귀하가 다음의 목적으로 컴퓨터(인터넷)를 얼마나 사용 하는지 표시해 주십시오.’하에 제시된 항목 중 ‘채팅하기/메신저 사용’, ‘전자우편 (E-mail, 이메일)이용’, ‘동호회/카페/커뮤니티 활동’, ‘게시판 활동’의 네 개의 항목을 인터넷의 사회적 이용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안한다, 2-아주 가끔 한다, 3-가끔 한다, 4-자주한다, 5-매우 자주한다) 값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사회적 이용 유형의 이용 정도는 네 개 문항에서 선택한 척도 값의 평균을 통해 측정했다.

② 정보추구 이용

학생 대상 설문 조사 16-2번 질문 ‘귀하가 다음의 목적으로 컴퓨터(인터넷)를 얼마나 사용 하는지 표시해 주십시오.’하에 제시된 문항 중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열람’과 ‘기타 정보 검색 및 열람’항목을 정보추구 이용으로 정의하고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을 통해 정보추구 이용 유형의 이용 정도를 측정 했다.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안한다, 2-아주 가끔 한다, 3-가끔 한다, 4-자주한다, 5-매우 자주한다) 값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분석에 사용된 측정치는 두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했다.

<표 1> 인터넷 이용 유형별 인터넷 이용 문항

	사회적 이용	정보추구 이용	게임 이용
인터넷 이용 문항	동호회/카페/커뮤니티 활동 전자우편(E-mail) 이용 채팅하기/메신저 사용 게시판 활동	공부 및 학습관련 정보검색, 열람 기타 정보검색, 열람	컴퓨터 게임

(2) 시간 무변동 예측변인(time invariant predictors): 성별, 가구소득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잠재성장모형은 개인의 변화율이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별과 월평균 가구 소득을 통제변인에 포함시켰다. 이 변인들은 3년간의 시간 안에는 변화가 없거나(성별) 거의 없는 변인(가구소득)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탈의 변화와 그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이용행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종단적 패널 자료의 변화를 추정하고 변인 간 관련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사용했다. 자료가 시계열적(serially)으로 수집되는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자기회귀분석법(auto-regression analysis)과 개체성장모형(individual growth curve model)이 있다(김두섭 · 강남준, 2008). 이 두 통계적 분석 모델은 종단적 패널 데이터 분석에서 모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두 방식에서 어느 것이 더 우월한 방법이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Bollen & Curran, 2004). 다만 자기회귀분석에서는 영향력의 시차(time-lag)을 구체적으로 분석 모델에(예: 1st. lag, 2nd. lag 등) 집어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성장모형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의 변화 차이를 모델에 변인화 해 넣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역으

로 각 방법의 장점이 다른 방법의 단점이 된다. 따라서 바로 직전 시점(t-1)의 영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더 관심이 있는 연구문제는 자기회귀 방법을, 그보다는 시간 경과에 따른 개인의 변화 차이에 더 관심이 있을 경우에는 개체 성장모형을 사용한다. 여기서는 이 개체성장 모형을 확장한 잠재변인 성장모형을 사용하였는데, 이 두 방식의 차이는 동일한 개념에 대한 복수의 측정변인(observed variables)을 확증적 요인분석방법(CFA)를 사용해 잠재변인화 하고 이들 사이의 성장곡선을 추정하는 점에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구조방정식모형(SEM)의 프로그램인 LISREL을 사용해 잠재성장모형(LGM: Latent Growth Model)의 계수를 추정했다.

일반적으로 개체성장모형은 반복 측정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균의 차이에 기초한 전통적인 분석 방법들의 몇 가지 제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분석법으로 변인의 변화 경향에 관심을 가질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개체성장모형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평균 변화뿐만 아니라, 변화에 있어서 개인 간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잠재성장모형은 초기 값과 변화 요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변화에 대한 외부 변인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이기봉 · 박일혁, 2001). 따라서 이 연구의 연구문제인 인터넷 일탈의 변화 형태를 추정하고,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예측변인의 영향력 차이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개인 간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잠재변인을 이용한 개체성장모형을 사용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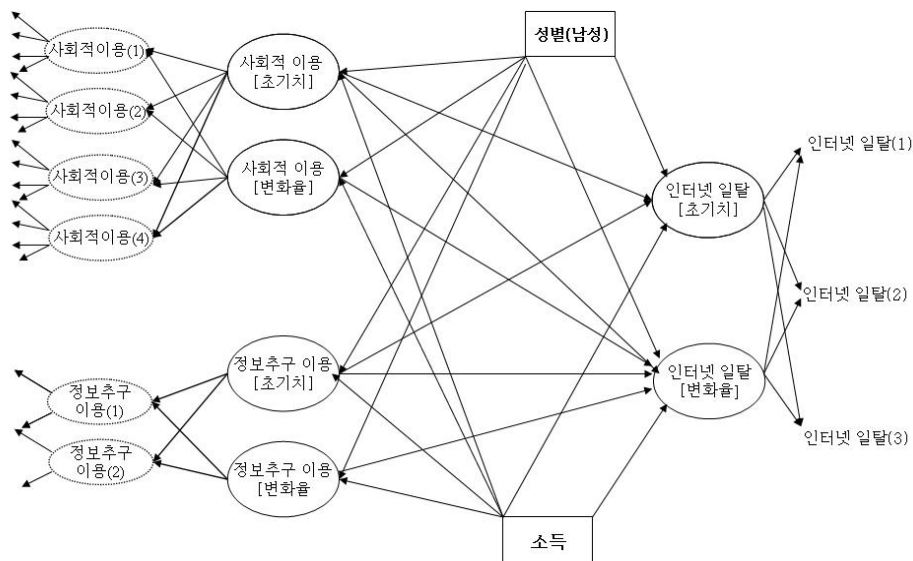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4개의 측정변인으로 이루어진 인터넷의 사회적 이용행태 잠재변인과 2개의 측정변인으로 구성되는 정보추구 이용행태 잠재변인 사이에 3개 년도에 걸친 개체성장곡선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³⁾ 이 연구모형에서는 앞에서 논의한대로 성별과 월평균 가구소득을 통제변인으로 추가했다.

이 모형에서는 변화율과 1, 2, 3차년도 측정변인(사회적 이용, 정보추구 이용, 인터넷

2) 앞서 밝힌 바처럼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인터넷 이용패턴이 급격히 변화하며, 시간적 변화 정도가 크고, 또 성별, 가정의 SES에 따른 차이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한국 인터넷진흥원, 2008), 인터넷 일탈에 대한 시간적 변화를 개인차원에서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개체성장모형이 자기회귀분석 방법에 비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3) 판별타당도의 검증 결과, 3년간에 걸쳐 사회적 이용이나 정보추구 이용의 같은 개념 간의 상관관계는 높게, 서로 다른 개념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게 나타나, 두 개념 사이의 판별타당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측정변인들의 잠재변인에 대한 람다(Lambda) 적재치가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측정변인의 잠재변인에 대한 수렴타당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탈)들 사이에 대한 관계를 선형(linear)로 가정하고 구조계수(structural coefficients)를 0, 1, 2로 부여했다. 초기치에 대한 계수는 모두 1로 고정했다.⁴⁾ 초기치나 변화율에 대한 통계적 추정에는 최대우도방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했다. 개체성장모형에서 흔히 사용되는 모형추정방법으로는 최대우도 추정, 제한적 최대우도추정(restricted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그리고 경제통계학(econometrics)에서 주로 이용하는 일반화 최소자승제곱법(GLS: generalized least squares estimation)을 꼽을 수 있다. 지금껏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분석대상 자료가 균형설계(balanced design)를 따를 경우, 그리고 사례수가 클 경우 세 가지 모형추정방법은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서는 연도별 패널 감모율(attrition rate)이 아주 적어 시점 별 표본 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사례수도 커서 최대우도 추정법을 사용했다.



[그림 1] 연구모형

4)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율이 선형이나 아니면 곡선으로 가정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개체성장모형에 성장모형에서 아주 중요한 논점이다. 변화율에 대한 계수를 선형(0, 1, 2)로 투입한 모델의 모델 적합도지수(AGFI, NNI, RMSEA) 등이 곡선관계를 나타내는 2차함수모형(0, 1, 4)을 사용해 추정한 모델의 적합도 지수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또한 여기서는 관찰 시점이 3개 밖에 안 되므로 이러한 선형/곡선에 대한 논의 자체가 크게 유용성을 갖지 않는다. 시점에 따른 변화율 계수를 자유추정계수(free parameters)로 규정해 추정한 모델에서의 적합도 지수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V.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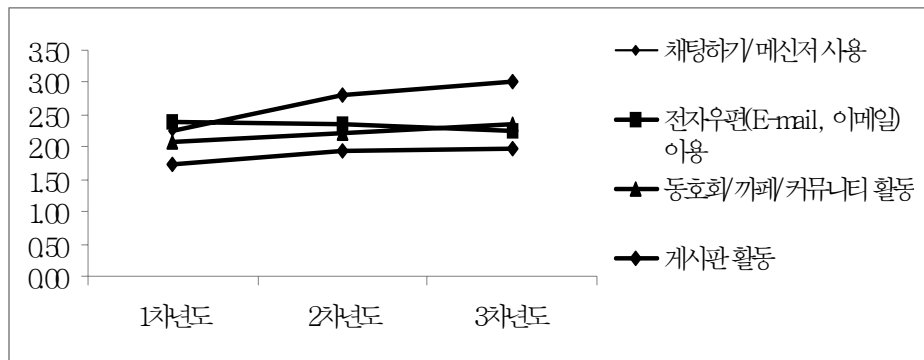
우선 이 연구의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모두 인터넷 일탈의 경우 3년간 비슷하게 아주 가끔 하지만(1차년도 $M=.46$, $SD=.81$, 2차년도 $M=.48$, $SD=.85$, 3차년도 $M=.51$, $SD=.91$),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일탈의 표준편차가 비슷한 것은 평균의 차이와 시간적 변화 요인 이외에 제 3의 요인이 작용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Stoolmiller, 1994).

아래 <표 2>과 [그림 2] 그리고 <표 3>와 [그림 3]은 1, 2, 3차년도 3년간 동안 인터넷의 정보추구 이용 정도와 사회적 이용 정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각각 나타낸다. [그림 2]에 나타난 사회적 이용 정도의 이용 유형 별 세부 항목들을 보면 전자우편의 경우만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나머지는 모두 선형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주었다. 정보추구 이용행태의 세부적 항목의 경우를 나타내는 [그림 3]의 경우에는 학습에 필요한 정보 검색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기타 정보검색 이용은 계속 늘어났다. Stoolmiller에 의하면 이러한 [그림 2]이나 [그림 3]과 같은 패턴이 시간에 따른 개인적 변화를 나타내는 대표적 형태라고 한다(Stoolmiller, 1994, <Figure 2>, Pattern 6, p. 274). 따라서 여기서는 이와 같은 변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 패턴을 선형적으로 가정하고 잠재성장모형의 기울기(β)를 추정했다.

<표 2> 사회적 이용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변화

		평 균	표준편차
채팅하기/메신저 사용	1차년도	2.25	1.32
	2차년도	2.80	1.37
	3차년도	3.00	1.37
전자우편(E-mail, 이메일) 이용	1차년도	2.39	1.29
	2차년도	2.35	1.18
	3차년도	2.26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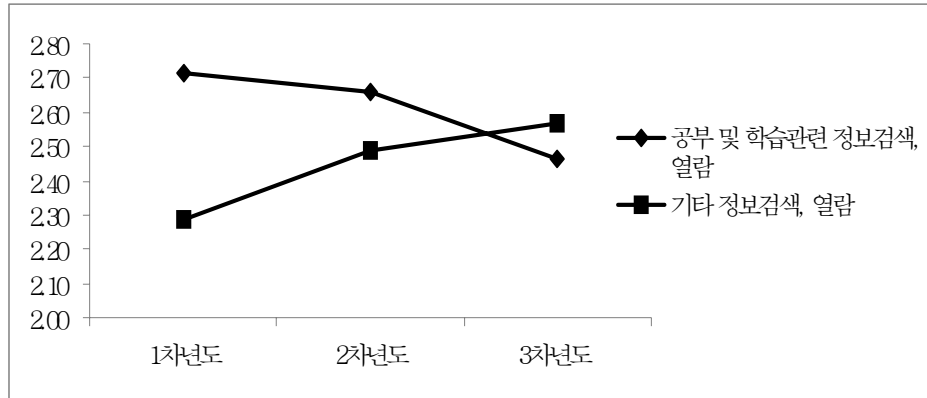
		평 균	표준편차
동호회/카페/커뮤니티 활동	1차년도	2.08	1.33
	2차년도	2.22	1.29
	3차년도	2.36	1.32
게시판 활동	1차년도	1.72	1.09
	2차년도	1.95	1.18
	3차년도	1.98	1.19



[그림 2] 사회적 이용 항목별 평균 변화

<표 3> 정보추구 이용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변화

		평균	표준편차
공부 및 학습관련 정보검색, 열람	1차년도	2.72	1.22
	2차년도	2.66	1.18
	3차년도	2.46	1.17
기타 정보검색, 열람	1차년도	2.29	1.31
	2차년도	2.49	1.31
	3차년도	2.57	1.29



[그림 3] 정보추구 이용 항목별 평균 변화

2. 잠재성장모형의 분석결과

잠재성장 모형에 인터넷 일탈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투입한 결과 [그림 4]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해석의 편의상 유의도 수준 .05 이하인 구조 계수(structural coefficients)들은 수치를 표시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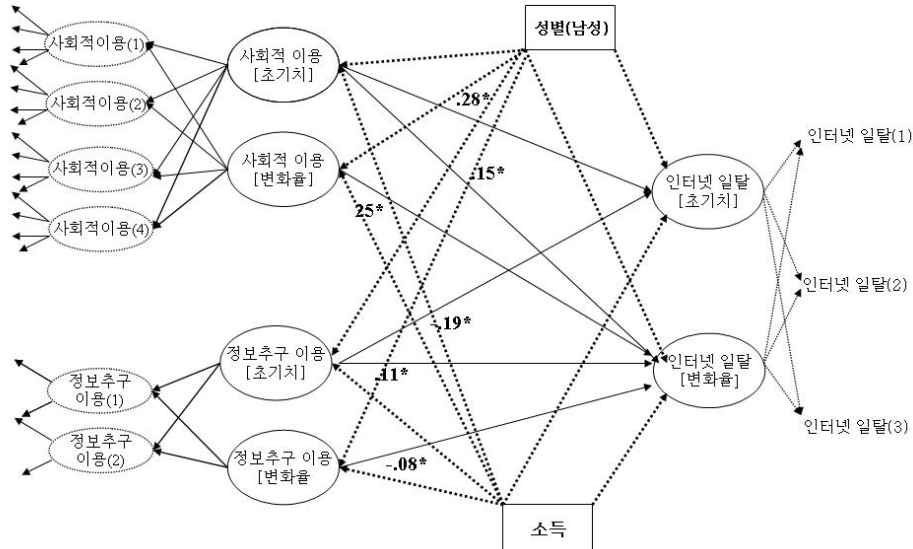
먼저 인터넷 일탈의 초기치에 대해서는 인터넷의 사회적 이용의 초기치(.28)가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정보추구 이용의 초기치(-.19)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이 이 연구가 개시된 초기에, 즉 초등학교 4학년 때 사회적으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할수록 인터넷 일탈을 더 많이 하는 반면, 정보 추구를 위해 인터넷을 많이 이용할수록 인터넷 일탈을 더욱 적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적 이용이 증가할수록 초등학교의 인터넷 일탈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가설 1-1>을 지지한다. 뿐만 아니라 <가설 1-2>에서 사회적 이용이 초등학교의 인터넷 일탈에 미치는 영향이 정보추구 이용의 영향보다 클 것이라고 예측했던바 역시 지지됐다.

한편 인터넷 일탈의 변화율에는 인터넷의 사회적 이용의 초기치(.15)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정보추구 이용의 초기치(.11) 역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이 사회적으로 초기에 인터넷을 많이 이용할수록 인터

넷 일탈이 증가하는 비율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속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어 〈가설 1-1〉을 지지한다. 또한 사회적 이용에 따른 인터넷 일탈의 변화 정도가 정보추구 이용보다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 역시 지지됐다. 뿐만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라 인터넷 일탈 증가율이 가속화된다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초등학생의 인터넷 이용 유형에 따른 인터넷 일탈의 변화 정도가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연구문제 2]의 답을 구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인터넷 일탈의 변화율에는 인터넷의 사회적 이용의 변화율(.25)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정보추구 이용의 변화율(-.08)의 경우에는 부적 관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인 이용을 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인터넷 일탈을 범하는 속도가 더욱 빠른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을 검증했으며, 정보추구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인터넷 일탈을 범하는 속도가 더욱 느리고 오히려 부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어, 사회적 이용이 초등학생의 인터넷 일탈에 미치는 영향이 정보추구 이용의 영향보다 클 것이라는 〈가설 1-2〉를 지지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회적 이용 속도는 아동들의 인터넷 일탈 증가율을 가속화하는 반면, 정보추구 이용 속도는 인터넷 일탈의 증가율을 부적으로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이용유형에 따른 인터넷 일탈의 변화 정도가 시간경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연구문제 2]).

한편 통제 변인으로 투입했던 성별, 소득수준은 인터넷 일탈이나 사회적 이용, 정보추구 이용의 초기치나 변화율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시간에 따른 평균의 차이가 갖는 변화만으로 대부분의 변량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 분석 결과

VI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인터넷 이용 유형에 따라 인터넷 일탈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아동의 인터넷 일탈의 변화 형태를 추정하고,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예측변인의 영향력 차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 개인 간에 어떻게 바뀌는가를 파악해보았다.

인터넷 일탈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이용의 초기치가 인터넷 일탈의 초기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정보추구 이용의 초기치는 인터넷 일탈의 초기치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회적 이용과 정보추구 이용은 모두 인터넷 일탈의 변화율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사회적 이용이 정보추구 이용보다 약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사회적 이용과 정보추구 이용의 초기치 뿐 아니라 변화율이 인터넷 일탈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이용의 변화율이 시간 경과에 따른 일탈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정보추구 이용의 그것에 비해 3배 이상 컸다. 여기서 정보추구 이용의 영향력은 정적(+)인데 반해 정보추구 이용은 부적(-)으로 나타나 일탈의 변화율 차이가 실제적으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 검토를 통해 인터넷을 사회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비행기회로 작용하여 인터넷 일탈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 예측했던 바를 입증해준다. 나아가 선행 연구에서 명확히 그 영향력이 밝혀지지 않았던 정보추구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일탈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호회 활동이나 이메일 이용, 채팅 등이 명의도용, 욕설이나 폭언, 해킹 등의 인터넷 상의 일탈에 노출될 기회들을 보다 빈번히 접촉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서, 이러한 일탈이 보다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인터넷을 학습 관련 정보나 기타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동들의 경우 이것이 바람직한 동기로 작용하여 인터넷 일탈이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선행 연구에서 사회적 이용과 정보추구 이용이라는 인터넷 유형에 따라 인터넷 일탈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 결과로서 밝힌 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영향력과 방향을 확연히 보여주는 이러한 결과들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함께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인터넷 일탈의 변화율이 아동 개인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으며, 사회적 이용과 정보추구 이용이 이러한 개인차에 미치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을 사회적으로 이용하는 속도가 빠른 아동들은 인터넷 일탈을 더욱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증가율이 시간 경과에 따라 더 빠르게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보추구 이용 속도가 빠른 아동들의 인터넷 일탈의 증가율은 급격히 감속됨을 보여준다. 인터넷 이용과 인터넷 일탈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성장을 고려하여 그 종단적인 영향력을 밝힌 바가 없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영향력의 개인별 차이를 고려한 연구 역시 없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러한 결과는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해 시간 경과에 따른 아동 개개인의 인터넷 이용 유형 변화와 인터넷 일탈 변화율 간의 시계열적인 변동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한편 소득이나 성별이 사회적 이용, 정보추구 이용의 초기치나 변화율에 모두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 시기의 초등학교생들은 거의 모두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또 사회적 이용 또는 정

보통구 이용에 이미 익숙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매체 발달사에서 보면 사회에 새로이 도입된 매체가 대중화 되어 보편적 매체(U-media)가 되면 소득이나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속성의 영향이 사라지는데, 이와 유사한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인터넷 이용 유형에 주목함으로써 인터넷 상의 일탈을 억제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적 이용을 많이 할수록 인터넷 일탈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나 교사는 아동들이 인터넷을 사회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예의 주시 하면서, 과도하지 않게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나아가 올바른 사회적 이용의 예절과 방법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추구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일탈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볼 때, 공부 및 학습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고 열람하는 등의 정보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장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와 함께 아동 개개인이 각각의 인터넷 이용 유형을 행하는 속도가 인터넷 일탈의 증가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아동들로 하여금 정해진 시간 내에 사회적 이용과 정보추구 이용을 얼마나 하는가의 정도를 조절하고 적절히 배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일탈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추구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일탈을 감소하며, 정보추구 이용의 속도가 인터넷 일탈의 증가율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러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론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추구 행동의 특성 및 그 영향력, 그리고 정보추구 이용을 많이 하는 아동들의 특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장을 고려한 종단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3년간 변화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이는 인터넷 이용 유형에 의한 인터넷 일탈의 변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기간이다. 개체 성장모형은 일반적으로 5 시점 이상일 경우 안정적인 결과를 추정해낸다고 한다(Bollen & Curran, 2004). 따라서 인터넷 일탈 증가의 결정적 시기를 파악하고 인터넷 일탈을 예방, 지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패널 조사(KYPS)의 3차 이후의 자료들을 포함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Bollen과 Curran(2004)이 제시한 자기회귀분석 모델과 개체성장모형을 통합한 ALT(autoregressive latent model) 방법을 사용해 다시 결과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ALT 모델은 시계열적으로 측정된 변인, 예를 들어 <그림 1>의 연구모형에서 ‘인터넷 일탈 1’, ‘인터넷 일탈 2’, ‘인터넷 일탈 3’의 오차변인 사이에 자기회귀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아직 통계 계산을 할 수 있는 범용 패키지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 않다. 추후에는 Bollen과 Curran의 논문에서 제시한 추정식 함수를 사용해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 방법으로 추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두섭·강남준 (2008). 회귀분석의 기초와 응용, 서울: 나남.
- 김문조·윤옥경 (2001). 유해업소 출입과 청소년 비행: 분석과 대응. 청소년학연구, 제 8권 제1호, pp.99-116.
- 김은미·나은영·박소라 (2007). 청소년 인터넷 유해 정보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방송학보, 제21권 제2호, pp.209-257.
- 김재휘·김지호 (2002). 인터넷 일탈행동 및 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제3권 제2호, pp.91-110.
- 나은영·박소라·김은미 (2007).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유형별 미디어 이용 양식과 적응-블로그형과 게임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1권 제2호, pp.392-524.
- 노성호 (2005). 청소년의 비행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검증. 제2회 한국 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pp.583-605.
- 박병식·전경숙·윤옥경·정혜영 (1999). 청소년문제행동과 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 연구 보고 99-R,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
- 박성수 (2001).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행정학회보, 제12권, pp.91-121.
- 박소라·김은미·나은영 (2007). 공모논문: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유형화 및 유형별 친구 관계의 특성.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2권, pp.39-81.
- 배영·박소라 (2005). 어린이 집단의 미디어 이용과 사회적 관계. 한국방송학보, 제19권 제4호, pp.307-350.
- 서주현 (2001). 청소년의 인터넷을 통한 친구관계의 기능, 구조적 특성 및 만족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성한기·안경옥 (2005). 인터넷 사용 유형과 중독수준에 따른 친구 관계 및 가상공간의 현실지각.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0권 제4호, pp.475-488.
- 안선정·최보가 (2007). 인터넷 사용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성과 자기 효능감. 아동학회지, 제29권 제1호, pp.33-48.
- 이기봉·박일혁(2001). 측정평가: 종단적 운동수행력의 변화 분석-잠재성장모형의 이용. 한국체육학회지, 제40권 제2호, PP. 885-897.
- 이성식 (2005). 사이버상의 청소년비행에 대한 일반이론의 검증. 한국공인행정학회보,

- 제9호, pp.227-249.
- 이소희·성윤숙 (2001). 인터넷 음란 정보와 청소년의 사이버 일탈. *청소년복지연구*, 제3권 제1호, pp.111-124.
- 장윤재·김소희 (2008). 컴퓨터 이용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언론정보연구*, 제45권 제1호, pp.67-96.
- 정기선(2000).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의 사회 심리적 영향. *정보와 사회*, 제2호, pp.183-207.
- 정기원 (2006). 부모 및 교사 애착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일반 긴장 이론의 실증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5-2호, pp.81-102.
- 정영숙 (2000). 특별주제/N세대의 새로운 행동 패러다임: 청소년의 사회성, 도덕성을 중심으로 N세대의 친사회도덕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3권 제3호, pp.21-42.
- 탁수연·박영신·김의철 (2007). 고등학생의 사이버 일탈과 인간관계, 심리특성 및 행동 특성의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4권 제4호, pp.233-258.
- 한국인터넷진흥원(2008). 2007년도 하반기 정보화실태 보고서. [http://isis.nida.or.kr\(2008.9.3\)](http://isis.nida.or.kr(2008.9.3)).
- 한국인터넷진흥원(2008). 한국인터넷백서. [http://isis.nida.or.kr/ebook/ebook.html\(2008.9.3\)](http://isis.nida.or.kr/ebook/ebook.html(2008.9.3))
- 한국청소년개발원(2001). 청소년의 인터넷관련 문제행동 실태분석-전국 청소년 문제 행동 실태조사 심화 연구 (연구보고01-R16).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황상민 (2000). 사이버 공간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서울 : 김영사.
- 황상민·한규석 (1999). 사이버공간의 심리. 서울 : 박영사.
- Bollen, K. & Curran, P. (2004). Autoregressive trajectory(ALT) models: a synthesis of two tradition,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Vol. 32, pp.336-383.
- Hagan, J. (1987). *Modern criminology: crime, criminal behaviour and Its Control*. Singapore: McGraw Hill.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yers, D. G. (2002). *Social psychology(7th)*. New York: McGraw-Hill.
- Smith, T. R. (2004). Low self-control, staged opportunity, and subsequent fraudulent behavior.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Vol. 31, pp.542-563.
- Stoolmiller, M. (1994). Antisocial behavior, delinquent peer association and unsupervised wandering for boys: growth and change from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29 No.3, pp.263-288.
- Sutherland, E. H. & Cressey, D. (1978). *Criminology*. Philadelphia: Lippincott.

ABSTRACT

The Effect of Children's Internet Use Type on Internet Deviance : The Use of a Latent Growth Model

Jang, Hyun-Mi* · Kim, Ban-Y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 growth model and to prove the effect of children's Internet use type on Internet deviance. Data from the 2004-2006 Korea Youth Panel Survey was used for the analysi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 growth curve model.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confirms the positive effects of social use and the negative effects of information-seeking use in terms of Internet deviance. Second, the intercept of social use has a greater effect on the slope of Internet deviance than the intercept of information-seeking use. Finally, while social use has a positive effect on Internet deviance, the information seeking use affects Internet deviance negatively.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educators should work at improving the way that children perceive and use the Internet. In short, to prevent Internet deviance, they should guide them towards the more informational uses while keeping them away from excessive use of the Internet for social purposes.

Key Words : internet use type, internet deviance, growth curve model

투고일 : 9월 21일, 심사일 : 10월 21일, 심사완료일 : 11월 7일

*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Student, in Department of Communicati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tudent, in Department of Communication

